

김호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Norway in a Nutshell

53. 굿 바이, 베르겐

12월 22일 아침. 오늘 베르겐을 떠난다. 어제는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아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밤이 한없이 계속되는 북유럽의 겨울이 처음에는 막연히 불안하고 우울하게 느껴졌는데 따뜻하고 안락한 실내에서 길고 긴 밤 동안 시간의 흐름을 잊고 생각에 잠겨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나는 노르웨이의 겨울밤을 지새우며 그리그의 교향악을 듣고 R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일기도 쓰면서 혼자 놀다가 테오도르 키텔센의 서정적인 그림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

아침에는 맑고 부드러운 물이 평평 쏟아지는 옥실에서 샤워를 하고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다. 8시 30분인데 레스토랑 안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다. 매일 아침마다 실컷 먹어서 질릴 만도 하건만 나는 여전히 연어와 청어를 먹었다.

망고 시금치 에너지 드링크와 어린이용 간유도 잊지 않았다. 노르웨이 스타일 조식은 오래오래 생각날 것이다.

조식 후에 방으로 올라와 짐을 챙겼다. 트렁크 하나에 백팩 하나, 짐은 간소하다.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 본다. 아름다운 황금빛 방, 며칠 동안 편하고 따뜻하게 재워 주어 정말 고마웠다. 레이스 커튼을 열고 어두운 바깥을 내다 본다. 하늘은 검은 천청색. 9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해가 뜨지 않는다. 브뤼겐 지구 앞 항구에 불빛만 일렁이고 있었다.

택시를 불러 달라고 프린트에 전화하고 나는 방을 나섰다. 305호 문이 내 뒤에서 딱딱 하고 닫히는 소리에 정말 떠난다는 실감이 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체크아웃을 하는 사이 택시가 도착했다. 나는 호리호리한 흑인 청년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베르겐에서 나의 집이었던 톤로



젠크란츠 호텔을 떠났다. 언덕을 내려가 광장을 지나 택시는 새벽의 겨울 항구도시를 가로질러 베르겐 공항으로 향했다.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사이 어둠 속에 헤드라이트를 켜 자동차들만 훑훑 지나갔다.

조용히 운전하는 흑인 청년 기사가 가끔 한마디씩 할 때 진한 액센트가 묻어 나서 나는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았다. 7년 전에 소말리아에서 난민으로 왔다고 한다. 나는 실례가 될지 모른다 생각하면서도 노르웨이에서의 삶에 만족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소말리아보다는 낫다' 라고 대답한다. 짧은 대답 속에 노르웨이에 정착한 아프리카 난민의 애환과 고민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애잔해졌다.

베르겐 공항에는 9시 40분에 도착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다. 바로 내가 바라는 그런 작별이다. 공항 앞 노란 'BERGEN?' 사인이 또 나를 맞아 주었다. 이번에는 '베르겐 어 떠셨나요?', '베르겐 너무 좋았죠?', '베르겐 또 오실 건가요?' 라는 듯이 들렸다. '말도 못하게 좋았죠! 물론 또 올 거예요.' 나는 마음 속으로 외치며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하고 깨끗한 베르겐 공항은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한적했다. 짐을 체크인하고 검색을 통과한 후에도 시간이 한참 남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면세점에 가서 아쿠아비트를 몇 병 샀다. 선물도 하고 나도 집에서 베르겐 생각이 나면 가끔 마시고 싶어서.

비행기는 11시 50분 정각에 출발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며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창가에 자리 잡은 나는 빗속에 젖어 있는 풍경을 오래오래 바라 보았다. 굿 바이 베르겐, 일년 내내 비가 오는 도시! 너를 보고 싶었던 꿈을 이루어 나는 정말 행복했었다. 여기서 시작해 '노르웨이 요약'을 해 본 것도 잊지 못할 것이다. 겨울 비 원없이 맞고 하얀 겨울 왕국 실제로 보고 떠난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 오른다. 베르겐은 순식간에 멀어졌고 저 밑으로 눈 덮인 빗살무늬 노르웨이 산악 지형이 아슬아슬 보였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남자 컷 \$12^{UP} •여자 컷 \$20^{UP}
 - 펌 + 컷 \$50^{UP}
 - 칼라+컷 \$50^{UP}
 - 칼라+헤어트리트먼트 \$60^{UP}
- 좋아지는 고객의 머리결은 저희 기쁨입니다

모발 손상이 전혀 없이 뿌리 부분만 "하프 inch" 블록 실려주는

시크릿 하프 inch 펌

- 갈라진 가마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 볼륨있는 생머리 스타일이 가능해집니다.
- 납작한 머리형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예약을 우선합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714)530-5755
8762 Garden Grove Bl. #106, Garden Grove, CA 92844(김치나라 건너편)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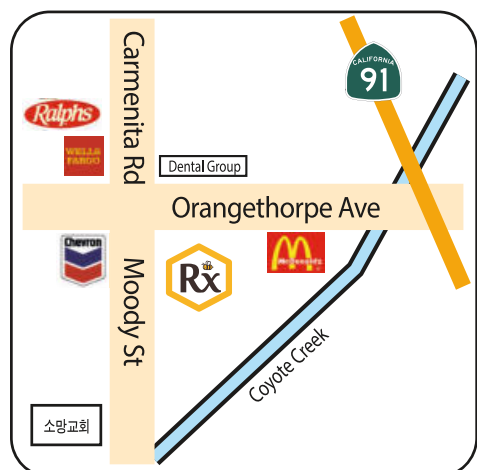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최고의 질병 치료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심각한 질병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꿀약국 예방접종센터에 문의 하세요.

건강한 약국, 꿀약국!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Fax: 562.403.2331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Honeyrx